

금호석유화학, 건축자재 휴그린 KS 인증

금호석유화학(대표 박찬구·김성채)은 건축자재 브랜드 <휴그린> 창호가 최근 KS(Korea Standard) 인증을 받았다고 7월20일 발표했다.

KS 인증은 정부가 품질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건설업계에서는 관급 공사와 1군 건설공사 시장 진출의 필수조건으로 여겨지고 있다.



휴그린이 KS 인증을 획득한 창호 규격은 PVC(Polyvinyl Chloride) 창호와 KS F 5602 합성수지제 창호용 형재, KS F 3117 창세트, KS F 3109 도어 세트 등이다.

금호석유화학은 KS 인증을 계기로 휴그린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호석유화학은 2011년 3월 충남 예산에 건축자재 전용 공장을 건설하며 건축자재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김성채 사장은 “KS 인증을 계기로 창호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케팅과 친환경 건축자재 라인업을 확대해 치열한 전자재 시장에서 차별제품을 내놓고 승부하겠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11/07/21>